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0월 14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28분 21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국민회의 입당과 정권교체

(그 당시)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 부산 출신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국민회의 입당 해서 김대중 (총재) 따라가면 절교하자(고 했죠). 우리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연설하고 다니는 이야기 있지요. 정권교체 이야기.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남북관계. 그때 소위 동북아시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촌놈 이야기. 이회창 (후보)와 비교했을 때 촌놈이 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의 순환이 없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주의, 이런 부분. 사회가 정체되는 문제. 나는, 야당은 야당이다. 야당은 이합집산 했지만 야당이다. 야당은 야당이다. 정통성. 많은 야당이 이합집산 했지만, 갈랐다 합쳤다 해도 야당은 야당이다. 그게 내 정체성이다.

다른 이유가 다 똑같다면, 나로서는 호남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지역 때문에 정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데,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 정치를 바로잡자면 지역 구도 극복해야 된다. 분열 이야기. 분열과 역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 역사가 불행을 남긴다. 이 분열에 가담할 수 없다. 영남 사람이므로 이 문제는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후보)이 승리하면 내가 어느 쪽에 섰거나 그건 별 관계없을지 모르겠는데 만일 호남이 다시 패배한다고 했을 때, 그 동안 도와주던 김정길, 노무현마저 호남 사람들과 등을 돌린 상태에서 졌을 때, 그런 절망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말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몇 사람이라도 호남을 함께 끌어 안고 함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많이 했어요.

(국민회의 입당 때) 또 에피소드가 있지요. 우리 참모들이 이인제 씨한테 가자는 참모는 없었어요. 내가 원체 완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인가 싶고. 참모 중에는 내가 옛날 통일민주당에(서 국회) 노동위원회 생활을 할 때 이인제 씨 하고 저하고 관계를 좀 알지요. 국민회의가 옳다, 한나라당 참여가 옳다, 라는 논쟁은 우리 참모들 사이에(도) 조금은 있었고. 나는 속명적으로 호남과 등질 수 없는 사람이다, 방향을 이쪽으로 잡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깊이 논쟁되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것이 입당의 조건입니다. 입당의 조건인데, 입당하면서 어딘가 보궐선

거가 앞으로 예정돼있는 지역구를 하나 받아라. 그 당시 종로가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종로, 구로을, 그 다음에 뭐 송파. 지역구를 보장 받아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종로, 지금 이종찬 부총재데 당내 그만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역구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느냐. 평지풍파만 일어나고, 되지도 않고, 말썽만 날 뿐이고. 구로을을 보니 거기는 김병오 선배가, 김병오 의원이 당을 함께하고 열심히 일하던 선배가 거기 대망하고 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입당하는 것이 아무리 장한 일이지만 뭐 잘났다고 지역구를 내놓으라고 하나. 송파는 김희완 씨. 옛날에 삼(3)당 통합 때 우리하고 함께 남아가지고 지금껏 고생을 함께해온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홍준표 (의원) 선거 부정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 힘으로 치면 밀어낼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람 도리로 할 것이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 알팍한 셈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다. 사람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인데 내 지역구 가지고 얘길 해서 이것이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하면 오히려 망신스러우니 뒷일은 뒤로 맡기고 그냥 조건 없이 입당이 됐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종찬 부총재가 안기부장으로 가게 되고 종로가 덜렁 비더라구요. 사람 일이란 게 한치 앞을 정말 내다볼 수 없는 (것이더라구요). 내가 짧게 이야기 했지만 당에 와가지고 내 밥그릇 갖고 남하고 싸워본 일이 없어요. 내 당직이나 밥그릇 갖고 남하고 싸워본 일이 없고. 이 구석 저 구석 고생스러운 일만 도맡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당에서 챙겨주는 거 갖고. 사람 욕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새삼 느끼게 되고 (요).

기왕에 종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종로 이야기를 하면 종로에 십오(15)대 총선하면서 내가 이종찬 부총재를 공격을 엄청 했어요. 말하자면 5공 주류 아니냐? 사무총장으로 (민정당) 창당을 했었거든요. 하필이면 이종찬 씨가 창당 작업을 맡고 사무총장직을 맡는다는 보도된 날 김대중 총재가 항소심에서 사형 구형을 받는 기사가 같은 신문에 같은 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대놓고 공격을 했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야당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이냐, 진짜 야당 뽀자,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래놓고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구십칠(97)년 삼(3)월에 제가 종로로 이사를 갖습니다. 그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총재)이 (대통령)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구도, 모든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또 이길 방법이 없는 구도였지요. 그러니까 내가 종로로 이사를 갈 때는 결국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다시 야당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냐. 진다고 보고, 야당이 패배하고 나면 다시 야

당을 재건하게 될 테고, 야당을 재건하게 될 때에는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종로 지구당에서는 내가 진짜 야당이니까 야당 재건할 때 이종찬 부총재하고 공천 경합하더라도 내가 이긴다. (웃음) 그런 생각으로 종로로 이사를 구심철(97)년 삼(3)월에 갔었어요. 그리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대로 당을 같이 하니 서로 협력하고 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나도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종찬 부총재가 서울시장을 은근히 좀 바라고 있는 처지였거든요. 근데 내 이해관계로는 이종찬 부총재가 서울시장으로 가버려야 종로 지구당을 내가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셈으로 하면 이종찬 부총재를 서울시장 쪽으로 밀어야 내가 종로를 받게 되는데, 옛날에 십오(15)대 (총선) 때 했던 논리하고 똑같이 적통이 아닌데,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 후보를 정권교체가 된 마당에 왜 적통이 아닌 사람, 말하자면 야당의 적통이 아닌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건 용납 못한다, 내가 시장 하겠다, 그러면서 말을 내놓기 시작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또 제가 일(1)위가 나오잖아요. (웃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종찬 부총재는 서울시장 안 된다, 공공연히 떠들고, 내놓고 시장 하겠다고 또 내밀어서 공격을 했지요.

그런데 안기부로 가고 결국 내가 종로를 다시 받게 되니까 종로 조직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이종찬 씨 조직을 인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시침 뚝 떼고 가서 좋은 말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조직 인수해 가지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종찬 부총재가 종로로 장차 복귀할 때를 생각해서 조직을 잘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추측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종로에 있는 이종찬 씨 조직들도 이종찬 씨가 다음에 돌아 올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저를 잘 돕질 않고 눈치를 슬슬 보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저것 다, 말하자면 내가 옛날에 자기를 공격했던 걸 다 따지지 않고, 아주 성의 있게 당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사모님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조직 인수에 애로사항 없이 잘 치러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치를 너무 내 논리만 가지고 정치를 까다롭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종찬 씨 쳐다보면 미안해요. (웃음)

(이런 경우가) 나는 한국의 정치의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소위 군사독재라고 하는 합법이 아닌 불법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정치세력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평가, 같이 정치할 수 없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해대니까 정치를 주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 집안에 살게 되고. 관계없이 갈라지고 관계없이 한 집안에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지요. 실

제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 용납 못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거나
와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합집산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이런 고민들은
없지요.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가장 불행한 점(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걸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정치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정치를 무슨 떡 나누
기처럼 이해관계로 전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사람들만 정치판에 남게 되는 것
이죠. 어쩔 도리 없이 이 시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거쳐 가는 과도기 다리 역할,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과도기적 정치인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치
를 계속할 거냐 그만 둘 거냐의 고민이 남달리 많은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인 아
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면 미래의 새로운 정치질
서에 대한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불가피한 타협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
를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별 생각 없이 편리할
대로 정치적 처신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겠죠. 이 대목에 내가 가끔 강연할 때 토
니 블레어를 예로 듭니다. 어느 신문에 칼럼을 보면 한국에는 왜 토니 블레어 같은
정치인이 없는가, 라는 이런 게 있더라구요. 그 이전에 토니 블레어의 전기를 읽어
본 터라 속마음으로 토니 블레어를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과연 어떤 정치인이 됐을
까? 토니 블레어가 언제 정당을 깨고 합치고 하는데 이 줄을 서야 되는지 저 줄을
서야 되는지 문제를 놓고 고심한 일이 있는가? 의정활동(을) 잘 했을 뿐이지? 토니
블레어를 찾지 말고 한국에서 그나마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웃음) 토니 블레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을, 그
저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을,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게 한국 정치다). 토니
블레어가 언제 자기를 희생한 결단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 손해 보는 결단을,
자기 희생하는 결단은 한 일이 없거든요. 한국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은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정치생명을 걸고 희생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가
말이지. 그런 사람이나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웃음)

(국민회의 입당하고) 그 뒤에 제일 많이 시달렸던 게 삼(3)김 청산한다더니 왜 삼
(3)김 당에 입당했느냐? (하는 질문이죠). 삼(3)김 청산 누가 만들어낸 애긴지 모
르지만 정치적 의미가 담긴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그때 삼(3)김 청산 이렇게 비난
했던 근거가 우리 정치가 지역구도를 활용하고 지역 기반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독선주의.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면서 정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이었던 거 같은데,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삼(3)김 청산이라는 것은 양김의 분열 때문에 오히려

양김의 분열 때문에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없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것은 어떤 불변의 윤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당시 구칠(97)년 연말의 상황은 글자 그대로 삼(3)김 청산, 정권교체, 세대교체(였죠). 이미 삼(3)김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도 말을 여러 번 바꾸고 지역구도도 활용하고 전혀 새롭지 않다는 판단이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권력에 줄 섰고 전혀 새롭지 않은 정치. 적어도 정권교체를 포기할 만큼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세대교체 얘기도 (그렇구요). 그런 상황에서 정권교체,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인데, 지금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디제이피(DJP) 연합에 관해서는 당이나 정치 집단에 관해서 어떤 이념과 노선을 내세웠을 때 거기에 백 퍼센트(100%) 동질성이나 백 퍼센트(100%)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치에서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국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치 이념만 갖고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올 때, 국민들이 정치인을 국회로 보낼 때 오로지 그 사람의 정치 노선과 성향만 갖고 판단해서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기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들이 종합돼서 국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국회의장을 한 여성이 있어요. 댄서 출신으로 국회의장이 됐던 여성(벤티 부스로이드-편집자)이 있는데 그 여성을 처음 정계 입문시킬 때에는 노동당, 보수당 양당에서 다 영입 교섭을 했거든요. 영입 교섭을 했듯이, 긴밀하게 백 퍼센트(100%)가 다 컬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 정당의 선택은 정치를 어느 세력이 주도하고 있느냐, 주도세력의 컬러가 그 정당의 컬러가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만 특히 이철 의원하고 사이에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만, 정치란 건 주도권의 문제다. 주도권의 성향이 그 정치세력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소 장애가 있겠지만, 야당이고 또 서민 정당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이런 논리를 (국민회의에) 입당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도권론’은 오래 전에 내가 수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야당을 죽 해왔는데, 야당도 점차 점차 민주화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선거를 많이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의 야당을 했던 사람들의 인맥만 가지고는 후보를 다 충족시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충족시켜 낼 수가 없었으니까 원칙적으로 야당 하던 사람을 좀 우대하고 그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 중립에 있었던 사람을 찾고, 그래도 지역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과거 여권에서 봉사하던 사람도 영입해서 후보로 내세우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럴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 야당 출신들이 중앙당에 와가지고 강력한 불만을, 항의를 하지요. 왜 구 여권 사람들을 입당시켰느냐? 그런 항의를 받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내 지구당에 해당된 게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엔 나도 이거 이래도 되느냐, 라고 중앙당에다 항의나 문제제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 지구당 위원장하고 대화를 해보면 달리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정당은 백 퍼센트(100%) 순종(純種)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많이 포섭해가는 경쟁이고, 결국 정당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주도세력의 성격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런 것으로 (봐야 한다). 디제이피(DJP) 문제는 그때 부닥쳐서가 아니고 그 훨씬 전에 정리돼있었고. 삼(3)김 청산 문제에 관해서는 십오(15)대 총선 막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통추 소속으로 있을 때지요? 김근태 씨가 통일시대국민회의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쪽에서 초청받아 가가지고 정국에 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권교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권교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래 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업적보다 정권을 한번 바꾼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잘하고 있는 나라는 공통적으로 과거에 민주주의 혁명을 거친 나라들, 그리고 지금 정권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백(100) 가지 제도보다 소위 경험, 정권교체의 경험, 이런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훨씬 더 획기적으로 기여한다. 우리에게 이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경험이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권교체는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정권교체 된다면 도와주겠다. 근데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되지 않느냐. 내 생각으론 차라리 민주당에(서) 분당을 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그랬더라면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이젠 그 기회도 없을 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터라 정권교체만 되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국민의 입당 훨씬 전에 강연에서 얘기 (했어요). 논리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참으로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설명하는 데 힘이 드는데, 어떻게 요새도 얘기하는 것은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적 명제는, 많은 전략적 전술적 명제는 다 타협의 대상이다. (3김 청산이) 원칙은 아니다, 전략적 명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

야기합니다).